



코스피 2972.48 (+45.10)	코스닥 991.33 (+21.41)
금리 (연고채 3년) 1.998 (-0.040)	환율 (원-달러) 1128.90 (-4.20) (12일)



[산업]
최정우 리더십 통했다
포스코 매출 76.4조
사상 최대 기록
08

한국이 주도하는 미래세상 'K-로봇' 상용화 빨라진다

코로나禍 비대면 증가로
산업계 로봇 상용화 속도

현대차, 4족보행·서빙로봇
두산, 사진 찍어주는 '니나'
LG, 클로이봇 시리즈 소개



현대로보틱스가 CES2022에서 소개한 로봇 카페(위)와 두산로보틱스가 만든 NINA.

/김재용 기자

로봇이 성큼 현실로 다가왔다. 글로벌 산업계가 로봇 개발에 매진하던 가운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상용화 속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일찌감치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다수 기업들은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CES2022에 다양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

현대자동차가 대표적, 현대중공업과 두산은 물론,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중소기업들까지 각각 로봇들을 선보였다.

형태는 다양했다. 현대차 4족보행 로봇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을 비롯해 물건을 집거나 커피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주는 팔모양 특수목적 로봇, 서빙용 로봇 등이다.

특히 이번에 소개된 로봇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미 활용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현대차 스팟은 지난해부터 기아차 광명 공장에서 세이프티 로봇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추후 전 공장에도 도입해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스트레치'도 이미 일부 물

류창고에 활용 중이며, 내년 중으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도 현대차는 모베드 등 로봇믹스 제품을 빠른 시일내에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로봇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 키트(SDK)도 마련해둔 상태다. 예를 들어 스팟에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매장 안내용으로 활용하는 등이다. 추후 인간형 로봇인 아틀라스가 상용화되면 단일 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두산로보틱스가 공개한 'NINA(니나)'는 지난 서울 모터쇼에서 MINI 부스에서 사진을 찍어주던 그로봇이다. 세밀한 움직임 뿐 아니라 AI를 이용한 초점 등 기술로 콘텐츠 제

작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협동 로봇 역시 이미 국내 공장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외 진출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현대로보틱스는 이미 전국에 여러 무인 매장에서 운영되는 커피 제조 로봇을 시연하면서, 서빙 로봇을 더해 매장 전체를 완전히 무인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국내외 중소형 업체들이 서빙 로봇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얼마나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지가 관건, 여러대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 기술도 제시됐다.

전자업계도 가세했다. LG전자가 가상으로 이미 여러곳에서 운영 중인 클로이봇 시리즈를 소개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삼성 봇 핸디에 이어 삼성 봇 아이를 처음 공개하며 로봇믹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조만간 로봇을 상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로봇 사업화 TF를 로봇사업팀으로 격상시켰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 유력시된다.

비용도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미 서빙 로봇은 월 100만원 미만으로도 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도 스팟 등 로봇을 SDK를 활용해 대량생산해 가격을 최대한 합리화한다는 목표, 대당 수천만원대로 떨어뜨리면 현장 도입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작년 취업자 수 7년여 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해 취업자 수가 36만명 넘게 늘며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취업자가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하지만 도·소매업 취업자가 15만 명 줄어든 속박·음식점업 취업자도 2년 연속 감소했다. 또 60세 이상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줄었다. 게다가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크게 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된 모습이다.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희망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스1

하나금융 '포스트 김정태' 뽑는다 유력 후보에 함영주-지성규

회추위 열고 선임절차·일정 논의
내달 중순 4~5명 최종후보 발표



함영주 부회장 지성규 부회장

하나금융그룹이 오는 3월 김정태 회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수순을 밟는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함영주·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이지만, 다만 함 부회장의 경우 현재 법원에서 채용관련 재판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함 부회장이 법률 리스크를 해결하고 회장 자리에 오를지, 지 부회장이 다크호스로 부상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하나금융그룹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일정을 논의했다.

회추위는 외부자문기관에서 추천한 후보 중 1차 자격요건을 판단해 후보군(롱리스트·long list)을 선정하고, 필요시 수차례의 압축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군(쇼트리스트·short list)을 선정한다. 이후 개별후보별 PT(Presentation)과 심층면접을 통해 2차 자격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날 회추위는 외문자문기관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검토하고 다음달 초 20명 안팎의 내·외부 후보군을 확정된 뒤 중순쯤 4~5명의 최종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회추위에 김정태 회장은 참여

하지 않는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2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대표이사 회장의 경우 연임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앞서 김 회장이 연임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이번 회추위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허윤(위원장)·박원구·백대승·김홍진·양동훈·이정원·권숙교·박동문 등 8명의 사외이사가 차기 회장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한 KEB 하나은행 초대행장을 맡아 두 은행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지난해 김 회장이 4연임할 당시 최종후보군에 오른 함 부회장은 최근 김 회장을 대신해 그룹워크숍 등 주요 회의를 이끌고 있어 차기회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내일부터 처방

팍스로비드 2.1만명분 오늘 국내도착
재택치료 고령층·면역저하자 대상

화이자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4일부터 공급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우선 투약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화이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초기 도입 물량은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배송한 뒤 65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14일부터 투약한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환자가 대상으로 무증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 허가 기준상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자는 12세 이상, 몸무게는 40kg 이상이다.

앞서 정부는 화이자 '팍스로비드' 76만 2000명분과 MSD '몰누피라비르'

24만 2000명분 등 총 100만 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중 팍스로비드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다. 정부는 2만 1000명분을 먼저 도입하고 1월 말까지 1만명분을 추가도입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초도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불가피하게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문 대통령 "정당 가입연령 낮춘 것 환영... 노동이사제 준비도 만전"
▲ 이재명, 10대 그룹 경영진 만나 "청년 채용 과감히 늘려 달라" /사진 뉴스1

▲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 공개 예고에... 국힘 "정치 공작"
▲ 미국 등 16개국 주한대사관, '취어축제 지지' 의견서 법원제출



▲ 김정은 661일만에 미사일 발사 참관... '최측근' 김여정도 동행
▲ 안축 "단일화,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면 그때 가서 판단" /사진 뉴스1